

# 제03강 고난의 환경을 통해 부르시는 하나님

- 출애굽기 1-2장 -

##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고난의 환경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는 부르심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떠나 애굽에서 살아 온 세월이 430년이 지나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일깨우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고난입니다. 고난당할 때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출1:8).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제국의 왕조를 바꾸셨습니다. 요셉이 활동하던 시기는 히소스 왕조가 붕괴되고 이미 애굽 제18조 왕조인 신왕국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학자들은 이곳에서 말하는 ‘새 왕’을 18왕조의 두 번째 왕인 아멘호텝 1세나 세 번째 왕인 투트모세 1세로 봅니다.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새 왕조의 핍박정책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을 떠나 자기 길을 걸을 때에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고난의 환경들을 배열하십니다. 이때 우리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환경적인 어려움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총의 기회입니다.

1.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에게 찾아온 심각한 고난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고난의 사건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1장)

- 이스라엘의 신앙 제한을 위하여 애굽의 신왕조는 이스라엘 장정들에게 종노동을 시켰고, 다시 산파들에게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도록 명령했습니다. 그 일도 실패하자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 강에 버리도록 했습니다.

2. 이스라엘이 어려운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어떤 약속이었습니까?(출1:9,12)

- 애굽 사람들이 그들의 번성을 두려워할 만큼 그들의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종다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3. 하나님이 그들의 어려운 상황을 아시고 그들의 탄식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웠던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으로 이스라엘을 돌보도록 관심을 끌었습니까?(출2:23-25)

- 고통으로 인하여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부르짖다의 ‘자아크’는 막다른 상황에 부딪혀 외치는 절규에 가까운 외침소리, 극한의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간절한 호소를 가리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고통과 탄식 가운데서 도움을 호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유념해야 할 일은 우리가 자각하고, 이 절망적인 상황으로부터 구원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 부르짖음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 믿음의 사람들이 뜻밖에 겪었던 고난 이야기

성경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겪었던 고난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은 단순히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다음 단계로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닥쳐왔던 고난의 위기들은 그들의 삶을 어떤 모습으로 성숙시켰습니까?

1.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찾아왔던 위기는 무엇이었으며, 그가 겪었던 어려움들은 어떠했습니까?(창12:10-20)

- 흥년이 들어 애굽에 내려가게 되고 아내마저 빼앗기게 되지만 하나님은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사락을 지켜 주셨고, 아브라함에게 은덕을 베풀게 합니다. 아브라함은 애굽 도피 사건을 통하여 그를 지키시며 지지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을 가슴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후로 아브라함의 신앙의 자세가 아주 긍정적으로 바뀌는 모습을 봅니다. 애굽에서 돌아온 뒤에 조카 롯과 목초지로 인한 분쟁이 있을 때 그는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젊은 조카에게 좋은 조건을 선택하도록 아량을 베풀습니다. 그의 조카 롯이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에게 포로로 붙잡혀 갔을 때 집에서 키운 종들과 함께 담대하게 전쟁을 일으켜 주카 롯을 구출합니다. 흥년으로 인해 경험했던 애굽으로의 도피는 그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기도 했지만 오히려 그의 신앙을 굳건하게 세우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게 되는 성숙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2. 다윗 때에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겪지만 이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에 대로운 왕이 준비됩니다. 다윗의 새 역사는 어떻게 시작되니까?(삼상17:1-58)  
- 전쟁을 통해 다윗은 초야에 묻혀 있던 목동에서 일약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다윗은 그가 목동으로 일할 때에 늘 각종 맹수로부터 그를 지키셨던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가 즐겨 사용했던 물맷돌로 적장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늘 자신의 현재의 일에 충실한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역에 준비된 사람입니다. 준비된 사람,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 위기의 전쟁이 오히려 성장의 기회가 됩니다.

3.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에서 겪었던 위기는 어떤 것이었습니까?(단3,6장) 그들에게 닥친 고난이 그들에게 준 유익은 무엇입니까?  
- 그들은 바벨론 제국의 왕을 신으로 섬기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이유로 고발당하고 고난을 겪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하여 드러나게 되고 역사 속에 빛나는 신앙의 위인들로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를 통하여 장차 나타날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비밀을 이 땅에 계시할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세 친구는 불 속에 던져졌으나 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위기 앞에서도 꺾이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불신 사회, 원수들에게 보여 주는 극적인 승리를 보여줍니다. 위기가 왔다고 두려워하지 마시다. 위기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 **신앙대로 살려고 하는 데 꼬이는 환경**

하나님이 돕지 않아서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성숙시키기 위해 배열하신 구속사적인 고난은 의미가 있습니다.

1. 하나님은 요셉을 생명의 부양자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애굽이 살고, 애굽 주변국가들이 살고, 야곱 가족 70명이 살고, 이스라엘의 애굽에서의 430년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를 애굽의 총리로 키우기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창37-50)  
- 요셉의 인생은 계속 고난의 인생, 꼬이는 인생이었습니다. 일찍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형들에게 이움을 받아 온 20년에 팔려 갑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되었으나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에 투옥되고 정치범들을 섬기게 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2년이나 요셉과의 약속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고난, 역경들은 그를 총리로 세우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 경제와 경영을 배웠습니다. 10년이 넘는 종의 생활을 통하여 섬기는 법을, 정치범 감옥에서 정치, 외교, 궁궐의 질서, 왕을 모시는 법 등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장차 그가 대제국의 총리가 되는데 필요한 수업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고난은 사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2.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를 세계 선교를 위해 선택하셨습니다(행1:8).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부흥으로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건을 출발로 하여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합니까?(행8:1-8)  
-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땅 끝까지 나아가 선교해야 할 사명을 주셨음에도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스데반 사건으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 사도 외에는 모두가 사방으로 도피를 합니다. 사마리아로 피신갔던 빌립을 통하여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평안한 환경 속에서 순종하면 좋았을 것을 그리하지 못하자 그들에게 찾아온 핍박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를 봅니다. 고난이 그동안 순종하지 못했던 선교를 시작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준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1:8)

3. 바울이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자를 치료해 주고 나서 많이 맞고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들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감옥 문이 열렸습니다. 빌립보에서 당한 고난이 구속사에 가져온 유익은 무엇입니까?(행16:16-40)  
- 믿음으로 살았지만 전혀 뜻밖의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교했지만 이 일이 문제를 가져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은 많은 영혼을 살리는 전도의 기회가 되었고 빌립보에 교회가 출발되는 엄청난 축복으로 발전합니다.

#### 적용질문

1. 나는 예상치 못한 고난을 당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응답하였습니까? 최근에 가장 힘들었던 어려움을 겪었을 때의 상황을 나누어 봅시다.

-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건을 보십시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건들 속에 힘든 생각만 하지 말고 믿음으로 사건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왜 이 사건을 배열하셨을까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건을 해석해 봅시다.

“신앙은 해석이다”라고 늘 말했습니다. 네게 다가온 일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문제를 풀어가고, 삶을 살아내는 것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2.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지난 고난의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깨달은 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 고난에는 뜻이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 사명을 붙잡아야 합니다. 뜻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고난은 사명입니다. 축복은 사명입니다. 부담은 사명입니다.”

3. 이스라엘은 위기가 왔을 때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부르짖은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 조상들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기도로 문제를 풀었던 간증을 나누어 봅시다.

-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출2:23-25)